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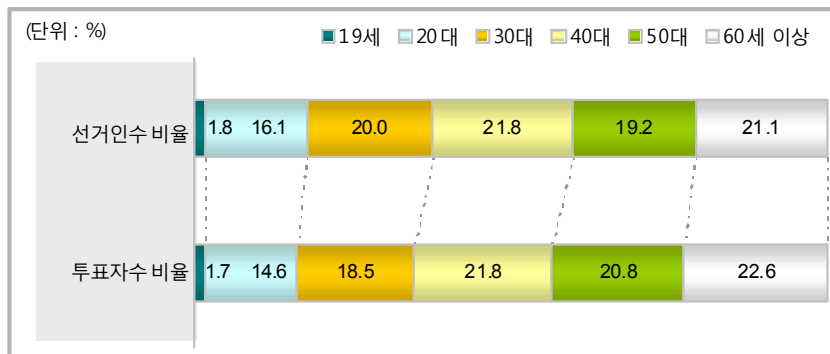
가족의 세대간 통합과 사회통합

: 사회통합의 장으로서의 “가족” 재발견

정 현 숙(상명대학교 교수)

5개 학회가 공동주관하는 본 학술대회와 2030 청년세대와 5060 중노년층의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갈등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가족, 지역사회, 정부차원의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즉, 세대간의 역사적, 문화적, 교육적 경험의 차이로 인한 차이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한 자원 분배 등에 대한 인식 차이로 갈등이 내재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세대 간의 갈등과 차이는 역사 이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세대 간 갈등과 차이문제는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니며, 역사 속에 상존해 온 현상이지만(함인회, 2013), 이러한 세대 차이의 이유는 역사적으로 차이가 난다. 조성남과 최유정(2003)은 지금까지 세대간 갈등에 대한 관점이 이해관계의 상충보다는 가치관이나, 의식과 행동의 차이 등 사회문화적 조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세대간 차이는 이전과는 달리 연금, 고용 등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세대간 이해관계에 대한 갈등에, 정치적인 인식과 행동에서의 의식과 행동 차이까지 반영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끄는 문제로 발전되었다. 물론 선거율은 후보들의 정책을 통해 이미 경제적 이해관계를 포함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미 16대 대선(예, 이정진, 2007)과 17대 총선(예, 최원기, 2006)에서 보수와 진보간 논쟁물결을 타고 세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정치학자들은 진단한바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18대 대선투표과정에서의 신규세대 간 지지후보 선호와 투표율(<표 1> 참조)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 “갈등”적 관점이 더욱 부각되었다.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1). 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p.6

<그림 1> 연령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비율 비교

유럽의 경우도 1960년대와 최근의 세대갈등은 그 원인과 대상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다. 1960년대의 갈등이 젊은 세대와 성인세대간의 정치적, 문화적 영역의 문제라면 최근의 갈등은 젊은 세대, 성인세대, 은퇴자 세대 등 3세대 간의 경제적 문제라는 것이다(Attias-Donfut & Arber, 2000). 즉, 가족이나 대학, 직장 등에서의 성의 위계나 세대간 책임공방 등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다른 연령집단 간 공적자원을 공유해야하는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복지와 혜택의 분배에서 발생하게 되는 세대간 불공평이라는 것이다. 함인희(2013)도 우리나라의 세대 이슈가 이전과 달리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기존의 세대갈등이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관계적인 특징에서 오는 정서적 긴장과 충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최근에는 사회적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의 심화 등 계급갈등적 요소가 있으며, 둘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회정치적 파워를 획득한 신세대와 기성세대간의 세대단절과 기성세대에 대한 권력과 권위 양도를 요구하는 세대 비약적 특성을 보이며, 셋째, 이러한 과정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진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학자들도 최근의 세대갈등을 연금과 일자리와 같은 경제적 이해 측면에서(예, 박길성, 2011) 분석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학자들이 진단한 세대차이의 원인과 그 해결 방안 중 일부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이러한 세대간 차이와 갈등의 원인을 정리하면,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세대 간에는 차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가족적, 사회적 환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세대차이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관심은 정치적 행동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하다. 이러한 정치행동에서의 세대충돌 양상에 대해 김문조(2003)는 비록 산업화세대와 민주화 세대사이의 정치경제적 이해갈등과 산업화와 민주화세대 대 정보화세대간의 문화적 가치갈등이 공존하지만, 지금까지의 선거에서는 산업화세대를 고립시키면서 민주화세대와 정보화세대가 공조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김제한(2006)은 한국사회의 세대간 정치적 갈등에 대한 담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은 이러한 차이에 대한 진단을 갈등으로 지속적으로 보도한 언론에 의해 세대차이 혹은 세대갈등이 더욱 큰 사회적 이슈로 발전되었으며, 함인희(2013)의 지적과 같이 이러한 과정에 기업의 마케팅 전략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최근의 세대간 갈등의 원인의 변화로 인해 세대관계를 포함한 사회현상의 해결책도 역시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다. 또한 가족에서의 세대갈등도 가족원들간의 이해와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그 차이와 갈등의 원인이 가족의 변화된 연금과 고용 등 경제적인 이유에 기인하건 중요한 것은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이해와 이를 통한 합의와 양보가 가장 중요한 해결책일 것이다. 그러나 합의와 양보를 위해서는 협상테이블에 앉을 세대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자질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기초강연에서는 바로 이러한 자질이 가족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세대간의 차이를 갈등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세대관계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차이와 세대갈등 현상을 가족학적 시각으로 분석하고, 소통과 통합의 장으로서, 즉 세대갈등이나 세대문제에 대한 해결의 장으로서의 가족을 재발견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

<표 1> 다양한 학자들의 세대차이와 갈등의 원인과 결과, 방안 들

연구자	세대	원인	결과/방안
Attias-Donfut & Arber(2000)	복지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젊은 세대와 성인세대간의 정치적 문화적 영역에서의 가치관이나, 의식과 행동 차이 · 최근 갈등은 젊은 세대, 성인세대, 은퇴자 세대 등 3세대 간의 경제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와 혜택의 합리적인 분배
박영균 (2009)	청소년 - 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격차(디지털 분리현상)로 인한 갈등 · 사회문화(정치, 경제, 계층, 대중매체 등)의 변화로 인한 세대간 경험과 이념의 차이로 인한 갈등 ·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한 부양의식 등의 변화로 인한 갈등 · 연령별 발달단계상의 차이로 인한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과: 신뢰의식, 가족의식과 정치의식에서의 차이
남순현 (2004)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으로의 변화 · 가족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하는 방식의 변화, · 가족의 심리적 자원으로써 애정, 보살핌과 같은 관계적 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유형 가변성 수용 · 각 세대의 상호교환적 가치 수용 · 효에 대한 재조명
이창호 (2002)	청소년 - 성인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조건과 경험의 차이 · 인간발달단계 상 특성, 변화 수용 능력 차이, · 일상적 행동과 세대갈등에 대한 대처방식 및 가치관 차이 · 자기효능감 차이 	
조성남 · 최유정 (2003)	부모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와 자녀간 상호적인 권위 인정 ·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부모와 자녀의 분절된 하루주기, 자녀들 요구 중심의 의식주 생활방식으로 변화, 개별적인 여가양식,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의 변화) · 부모자녀간 권위주의에서 평등주의로 변화 · 의사소통 기술 부족과 빈번한 감정적 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애정에 기반한 부모의 양보/합의 · 자녀세대의 부모세대 이해 · 양계제적 친족관계 정착으로 자녀와 부모세대 통합 · 종교, 의례 등 이벤트적 활동으로 가족공동체 형성
함인희 (2013)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축적 사회변동과정에서의 이질적인 생애사에 따른 세대정서의 차이 · 세대갈등 속에 포함된 계급갈등적 요소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젊은세대의 사회정치적 파워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편견 극복, 세대별 가치관/정체성 이해를 위해 교육 · 공정한 분배정책, 연령차별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 · N세대 정치사회화 및 새로운 정치문화 구축

다). 이러한 시도는 가족학이 갖는 독특한 시각 때문이며, 연구자 자신이 정치나 경제 등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비경제학적 시각에서 제시하고 한다. 실제로 사회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점(perspective)들이 사용되고, 사회과학의 각 학문분야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기본가정과 연구방법 및 세계관으로 사회현상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각 학문의 관점에서 유익한 해석을 제공해 왔다(정현숙, 2004). 비록 Burr, Day 와 Bahr(1993)의 주장과 같이 각각의 독특한 관점들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현실을 이해하는데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각 학문분야들이 현실의 특정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거나 특별한 현실에 대해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학문의 독특한 관점이 없었더라면 하지 못했을 생각을 가능케 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가족학적 시각은 경제학이나 정치학적 시각과는 다른 측면으로

1) 본 발표에서 세대에 관한 이론은 정현숙 등(2011)과 정현숙(2004)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였다.

문제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먼저 세대관계에 대한 관심과 이론적 관점을 통해 가족관계로 세대관계를 확대해야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왜 가족으로부터 출발해야하는지, 이러한 가족이 세대통합의 장으로 기능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세대, 세대갈등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본 연구에서 세대의 관점

세대(generation)의 어원은 ‘성립’, ‘출현’이라는 의미를 갖는 희랍어 ‘genos’에서 유래하였으며, 새로운 아이의 탄생, 새로운 또래집단의 등장, 일정한 생애단계로의 도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박재홍, 2001), 이러한 세대 개념은 시간, 노화, 연령집단, 사회구조 등을 반영하는 사회현상들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Bengtson, 1975), 어떤 집단이 공통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역사적인 특성으로써 동시대의 다른 구별을 위한 특성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왔다(유진이, 2002). 이러한 세대를 구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집단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기 위한 것으로 출생시기의 차이, 특정 사건 경험의 차이, 집단내 위치의 차이 등 일련의 차이를 전제하기 때문이다(최원기, 2006). 이러한 이유로 Kertzer(1983)는 세대간에서는 세대차이(generational differences)가 있으며, 세대차이는 일반적, 포괄적 개념으로 역사적, 문화적 경험차이로 인한 세대간 인식과 행위양식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러한 세대차이는 세대격차(generational gap)로 구체화된다. 세대격차는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하여 ‘주로 청소년층과 기성세대간의 차이’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두 세대 간에 존재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세대를 분류하는 기준에서 보듯이 출생시기의 차이, 특정사건 경험의 차이, 집단내 위치의 차이 등으로 인한 세대차이로 인해 세대격차는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상 항상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 밖에 없는 매우 자연스러운 사회발전의 긍정적 원동력으로 진단하기도 한다(조성남·박숙미, 2003; 최원기, 2006).

그러나 이러한 세대차이와 세대격차가 반드시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간 의식과 행위양식에서의 차이가 어떠한 결과를 빚어낼 경우 이를 세대갈등(generational conflict)이라고 한다(Kertzer, 1983). 이러한 차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 어떠한 형태로든 충돌이라는 외현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세대갈등은 심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나타나, 심한 논쟁, 폭력같은 극적인 결과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즉, 세대갈등은 이러한 차이가 특정현상으로 표출되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최원기(2006)는 이러한 세대갈등은 사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주요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상의 세대에 관한 이론들을 정리하면 세대간 차이는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되며, 세대차이는 세대격차를 그리고 심리적이거나 외현화된 모습의 세대갈등을 야기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대 간 상호작용과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전형적으로 인간의 생애과정의 양 끝에 있는 세대, 젊은이들과 노인세대간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간의 성장, 이해와 우정을 발전시킴으로써 두세대의 욕구를 충

족하는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는다(Newman, 2003). 따라서 비친족관계와 세대를 뛰어넘는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세대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가족연구에서의 세대관계는 “세대간”(between generation)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자녀관계도 세대관계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Hanks & Ponzetti, 2004). 가족은 성과 세대와 가족생활주기 및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구조적 특징(틀)과 가족구성원들간의 인지적·교류적·정서적 상호작용(과정)을 통해 관계가 이루어지는 다른 사회적 제도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정현숙·유계숙, 2002). 이러한 가족에서의 관계는 조부모-부모-자녀의 세대로 이루어지는 구조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학자들은 다른 사회과학분야의 세대관계연구에서 받아들이는 개념보다 더 확대하여 세대관계를 정의한다. 즉, 부모-자녀관계 뿐만 아니라 다른 친족과의 관계 등도 세대관계에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대관계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조부모, 삼촌고모 등의 세대와 자녀와 손자녀, 사촌조카 등의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대상이 되며(Martin-Matthews & Kobayashi, 2009), 아동(청소년, 혹은 성인)자녀와 부모관계, 고부관계 등도 중요한 세대관계로 다룬다(정현숙 등, 2011).

초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사회교과서에는 “가족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며...” 하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가족의 정의와 가족의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서를 예를 들지 않더라도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이 정말 중요하고, 사회의 가치가 재생산되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관계로 구성되는 가족을 세대갈등의 해결의 장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이러한 인식은 가족이 사적인 곳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 부모의 양육행동에서의 미숙 등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발전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으로 돌아가 사회문제의 해결의 장으로서 가족의 능력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 사회통합의 장으로서 가족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회통합의 장으로서 가족을 주목해야하는 이유를 매우 다양하지만 본 발표에서는 가족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메카니즘과, 가족고유의 본질, 가족의 변화로 인한 세대관계의 중요성 차원에서만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1) 가족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메카니즘

가족의 중요성, 특히 아동의 사회화에 대한 가족의 기능과 가족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사회과학분야에서조차도 가족과 사회의 상호작용에서 가족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제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족은 한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이며, 가족의 문화가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천혜정(1998)은 사회적 실재는 인간과는 무관하게 밖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진실이란 사회적, 역사적으로 조건화된 동의(同意)라고 주장한다. 가족구성원들간

의 상호작용을 통한 누적된 개인 삶의 경험과 집단 삶의 누적된 경험을 반영하는 사회적 역사적 산물이 가족이며, 이러한 역사적, 사회적 구성물인 가족은 한 사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정현숙, 2004).

실제로 Todd(1983, 1990)와 Hsu(1975)와 같은 학자들은 가족 또는 친족 조직의 관계적 특성이 전체 사회의 일반적인 행동양식, 조직원리, 지배적 가치관으로 어떻게 확산되는가를 밝힘으로서 가족문화를 통한 사회문화 분석의 가능성은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들은 사회조직 원리가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들이 다시 사회조직 원리를 강화하는 상호적 관계로 이해했지만, 이들 학자들의 연구에서는 ‘가족’에서 ‘사회’로 가치가 확산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미 형성된’ 가족 구성원리를 근거로 이에 적용한 개인들이 그 사회문화적 특성을 만들고 유지해 나가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가족’이라는 장(場)에서 태어나 기존의 가족관계를 학습하고, 나름대로의 적응행태를 발전시켜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런 설명들을 통해 한 사회의 문화를 ‘일정한 모습’으로 형성, 유지시키는 ‘기제’로서 ‘가족’의 중요성이 부각된다(신수진, 1998). 이러한 논의의 가능성은 가족이 다른 사회제도와 달리 세대관계를 통해 인간경험이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이다. 가족은 합법적, 관습적으로 형성된 친족관계와 연계되어 역사, 전통, 세대관계를 공유하며, 가족구성원들 간의 양육과 돌봄에 기초한다. 즉, 세대관계를 통한 사회화를 통해 가족문화가 계승된다는 것이다(정현숙, 2004).

특히 가족은 자족적인 사적단위가 아니라 공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속의 한 단위이기 때문에 신수진(2001)은 가족에 대한 연구가 단지 인간 행동의 사적영역에 대한 연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가족에 대한 가치체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사회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적 층위를 재검토하는 작업 또한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문화의 하위개념으로 사람들의 의식의 근저를 이루는 가족주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와 같은 문화적 이데올로기에서부터 각 가족의 추상적 사고수준인 가족패러다임과 가치, 종교적 사고 등 가족이데올로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수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가족의 패러다임은 인생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인지,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가에 대해 가족이 지속적이고 근본적으로 발달시킨 삶에 대한 기본가정들이기 때문이다(신수진, 2001; 정현숙, 2004). 따라서 세대관계의 원형을 가족에서 찾아야 하며, 그 해결책도 가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가족적 관점에서 볼 때 건강한 가족은 가족성원들이 문제나 위기에 처했을 때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우리의 다음 세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라나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가족으로 정의된다. 인종과 민족, 국가를 막론하고 건강한 가족은 응집성(cohesion)과 적응성(adaptability)이 균형적이며, 긍정적으로 의사소통(communication)을 하고, 가족이 처한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굳은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가지고 있으며, 친족체계(extended family system)나 사회체계(social system)와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상위체계와 연계된(connectedness to suprasystem)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정현숙 유계숙, 2001). 따라서 건강한 가족은 가족구성원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가족이며, 상위체계와 연계된 신념체계를 가지는 가족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집밖에서도 쎄다”는 우리의 속담도 가족과 사회의 관계성을 잘 보여준다. 어는 교황님의 말씀처럼 건강한 가족에서 건강한 자녀가 생기고, 건강한 가족이

모여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진리는 바로 가족의 건강한 문화가 사회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가족의 본질적 의미와 기능 때문에

가족학자들(Beutler, Burr & Bahr, 1989; Klein & White, 1996)은 가족이 다른 사회적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이 세대관계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가 영속적이라는 데서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한다. 또한 가족은 친밀한 인간관계의 장이며, 이러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세대를 거쳐 영속적인 것은 가족내에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령과 세대로 구성되는 가족의 구조적 특징과 애정적 관계와 기대를 기반으로 하는 관계적 특징은 차이와 갈등을 야기시키는 복잡한 환경이다. 갈등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갈등적 요소가 이중적으로 존재하는 가족이지만 가족의 독특한 환경들은 갈등에 완충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가정폭력과 학대, 심지어는 살인 등 갈등이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의 어떠한 요인들이 갈등에 완충작용을 하는가를 분석하는 작업이 현재 세대간 갈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족구성원들이 다른 사회제도와 달리 가족관계를 통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를 통해 상호이해하게 되는지의 메커니즘은 세대간 이해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많은 시사점이 있을 것이다.

3) 가족의 변화로 인한 세대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구조적인 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면에서 가족이 변화과정에 있다는 점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가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는 본 주제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자 한다.²⁾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세대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정현숙, 2011). 첫째, 평균수명의 증가(Bianhi, Hotz, McGarry & Seltzer, 2006; Davey, Savla & Belliston, 2003)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구조가 꾸준히 변하는 동안 가족구조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고령화와 범지구화로 가족생활과 세대간 결합(bond)의 다양성과 복잡성은 증가되기 때문에(Lowenstein & Bengtson, 2003), 가족내에서 세대간 관계는 개인의 삶에서 더욱 중요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가족과 관련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 예를 들면 결혼과 친족관계 및 출산 등을 포함하는 생애과정의 변화로 가족 내의 세대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관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혼과 재혼의 증가, 독신가구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 출산율의 감소, 늦은 출산 및 여성의 취업률 증가 등 가족구조의 변화는 가족 내 세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이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세대의 돌봄, 일과 가족의 양립 등과 같은 가족의 역할변화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조부모들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과업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정책적인 면에서의 의 변화도 촉진시켰다. 또한

2) 자세한 내용은 정현숙(2011)을 참고할 것.

가족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독신가구의 증가와 같은 주거패턴과 삶의 방식은 가족구성원들간의 도움과 지원 및 교환에도 영향을 미쳤다(정현숙, 2011). 이러한 이유로 Lloyd(2008)는 가족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세대간의 가치와 지식의 교환과 전달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 이러한 사회적 변화뿐만 아니라 세대프로그램의 효과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의 연구들은 가족에서의 세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의 세대간 교환은 가족과 지역사회가 경험하는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Roodin, 2004). 또한 아동과 노인발달, 교육학, 정신건강과 노인학 분야의 연구 결과(예: Davey, Savla & Belliston, 2003)에 의하면 노인들의 고립감, 낮은 자존감, 비일관적이고 낮은 가족 간의 접촉, 버려졌다는 느낌의 증가와 같은 노인들의 삶의 상황, 아동과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낮은 학교 참석률, 학교중도탈락, 낮은 동기, 반사회적 행동,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돌봄, 제한된 지원체계, 약물복용, 빈곤 등의 문제들에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에 의한 인구사회학적 변화가 세대 간의 공존기간을 장기화하게 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위하여 조부모와 다른 친족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김혜경, 2006), 가족 내의 다세대간 관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정현숙, 2011에서 재인용). 즉, 앞으로 사회에서의 변화는 가족의 생애과정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생애과정은 개인의 선택으로서가 아니라 필연으로 다가오며, 더불어 이 기간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질 것이다. 이러한 생애과정의 변화로 인한 가족관계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주목하여 가족의 삶의 질을 위한 소통과 공존의 방식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러한 공존은 곧 사회통합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가족내의 세대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3. 소통과 통합의 장(場)인 가족의 현실

1) 우리나라의 가구구성과 세대관계의 특성

우리나라의 가족구조는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표 2>와 같이 핵가족(9.4%는 한부모가족)이 61%, 3, 4세대가구는 약 6%이다. 이러한 분포는 2035년에는 핵가족이 53%(한부모가족 10%), 확대가족이 3.8%로 감소하며, 감소분은 1인가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표 2> 가구유형별 가구(2010~2035) (단위 : 천가구, %)

		2010(a)	2012	2015	2025	2035(b)	연평균변화		2010~ 2035 (b/a)
							가구	구성비	
가 구 수	계	17,359	17,951	18,705	20,937	22,261	196	100.0	1.28
	계	13,002	13,198	13,420	14,136	14,408	56	28.7	1.11
	부부	2,666	2,874	3,179	4,264	5,053	95	48.7	1.90
	부부+자녀	6,427	6,294	6,059	5,264	4,509	-77	-39.1	0.70
	부+자녀	347	373	410	511	564	9	4.4	1.62
	모+자녀	1,248	1,304	1,374	1,528	1,601	14	7.2	1.28
	3세대	1,062	1,035	992	891	851	-8	-4.3	0.80
	4세대이상	13	12	10	7	4	0	-0.2	0.35
	기타1)	1,240	1,305	1,395	1,671	1,826	23	12.0	1.47
	1인가구	4,153	4,539	5,061	6,561	7,628	139	70.9	1.84
	비친족가구	205	214	225	241	225	1	0.4	1.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구 성 비	계	74.9	73.5	71.7	67.5	64.7		
부부		15.4	16.0	17.0	20.4	22.7			
부부+자녀		37.0	35.1	32.4	25.1	20.3			
부+자녀		2.0	2.1	2.2	2.4	2.5			
모+자녀		7.2	7.3	7.3	7.3	7.2			
3세대		6.1	5.8	5.3	4.3	3.8			
4세대이상		0.1	0.1	0.1	0.0	0.0			
기타		7.1	7.3	7.5	8.0	8.2			
1인가구		23.9	25.3	27.1	31.3	34.3			
비친족가구		1.2	1.2	1.2	1.1	1.0			

*주: 1) 부부+미혼형제자매(기타친인척), 가구주+미혼형제자매, 가구주+기타친인척, 1세대기타, 부부+양친(한부모), 부부+미혼자녀+부부미혼형제자매, 조부모(한조부모)+미혼손자녀, 2세대기타

*출처: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보도자료]. 통계청 (pp. 10-11)

이러한 핵가족화의 구조적인 특징이 반드시 세대 간 단절과 관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는 핵가족이지만 관계적인 면에서는 수정확대가족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표 3>과 같이 연령과 혼인상태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배우자 부모의 경우 전체의 45.1%가 한 달에 한 두 번, 26.7%가 1년에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접촉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따로 사는 부모와 46.3%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70대 이상, 결혼지위 측면에서는 미혼과, 이혼/별거를 한 자녀들의 부모와의 접촉빈도는 매우 높아, 위기상황이나 미혼이 경우 여전히 부모가 중요

한 안전망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상호작용이 많은 집단의 특성은 무엇인가? 바로 이에 대한 해답이 세대간 소통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3> 성인자녀가 응답한 따로 사는 부모와의 접촉빈도 (단위: %)

구분	하루에 한번 이상		매일 혹은 거의 매일		최소 일주일에 한번정도		한 달에 한두 번		1년에 명절,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전체 ^{주)}	15.5	5.9	6.9	3.8	23.9	18.5	36.9	45.1	16.8	26.7	
성별	남성	18.8	1.8	5.2	3.3	22.5	13.7	39.2	49.3	14.2	31.9
	여성	11.7	10.4	8.9	4.4	25.5	23.6	34.2	40.5	19.7	21.1
연령	20-29세	34.2	8.8	12.4	16.7	24.8	29.7	22.3	33.4	6.3	11.4
	30-39세	12.2	3.5	6.7	1.4	27.6	21.8	41.1	53.6	12.5	19.7
	40-49세	8.1	6.5	5.4	3.7	23	17.3	40.4	45.4	23.1	27.2
	50-59세	12.3	7.8	3.5	4.5	16.9	10.5	39.9	33.1	27.4	44.1
	60-69세	31.1	9.6	5.5	0	15.8	5.7	24.5	23.6	23.1	61.1
70세이상	46.3	37.4	8.8	7.3	0	0	45	0	0	55.3	
혼인 상태	미혼	46.7	0	14.8	0	15.3	0	18	0	5.2	0
	배우자있음	6.4	5.4	4.9	3.8	27.1	18.9	42.7	45.8	19	26.1
	별거/이혼	24.9	53	5.9	6.8	14.9	0	15.6	1.8	38.4	38.4
사별	12.4	16	0.9	4.9	6.1	0	57.5	14.9	23.1	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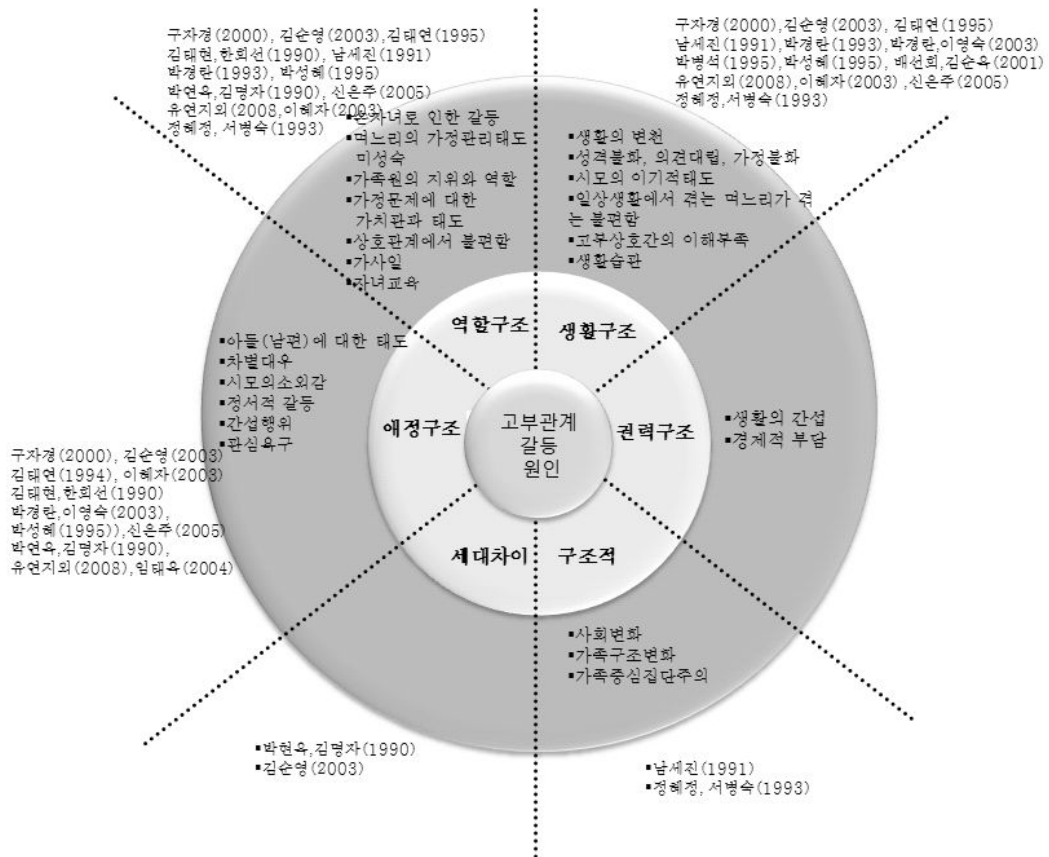
*주: 본인의 부모에 대한 응답 전체 2211명;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응답 전체 1662명

**출처: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pp.330-331)

세대간 교류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세대관계에서 부계와 모계를 비교하면, 모계와의 친밀감이 더 높으며 친밀감의 요인도 부계와 모계와는 차이가 있다. 최슬기와 최새은(2012)는 대학생들의 경우 손자녀들이 부계 조부모에 비해 모계 조부모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 또한 부계에서는 경제적 지원관계가 애정적 결속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이지만, 모계에서는 경제적 지원, 도구적, 정서적 지원도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모계와 부계에 대한 태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는데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와 특히 고부관계 등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로 고부관계의 갈등 내용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그림 2>와 같이 세대차이를 포함해서 애정구조, 역할구조, 생활구조, 권력구조에다 사회적 구조에 이르기 까지 그 원인은 거의 무한하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는 26.7%가 1년에 명절, 경조사 등 특별한 날에만 접촉한다(표 3 참조).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중년여성들의 자원봉사활동의 주요 대상은 노인이 45.4%로 가장 높고, 장애인(29.2%), 아동(12.9%)의 순이다(이순자, 2011).

둘째, 부모-조부모 관계는 손자녀-조부모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민미정, 2009) 부모자녀간 긍정적 관계와 부모-조부 관계의 질이 청소년기 자녀와 조부모와의 유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대학생의 경우(최슬기·최새은, 2012)도 부모-조부모의 친밀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정서적, 서비스 부양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중고등학생들(정동하, 2009)의 노부모 부양의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부모-조부모간의 친밀감이다,

셋째, 현재의 중년층은 다른 세대에 비해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는 세대이다. 3세대 간 경제적 흐름은 아랫세대에서 윗세대로 가는 방향이며(고선강, 2012), 이중부양 부담은 60대보다 40-50대에 더 가중된다. 한국노동패널 1-9차 분석결과(김지경·송은경, 2004) 결혼으로 분가한 자녀 중 부모와의 소득이전이 있는 비율은 58.4%로 매우 높은데, 특히 아들이고, 손자녀가 있는 경우 사적소득이전의 가능성은 더욱 높다. 반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은 자녀의 성별(남자), 자녀와 부모와의 왕래정도(자주), 자녀와 부모의 동일지역 거주여부(동일)가 영향을 미친다.



출처: 정현숙 등(2012). p.253

<그림 2> 고부관계의 갈등내용에 대한 연구결과

넷째, 세대간 심리적, 경제적 자원이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다. 경제적 자원이전의 경우는 부모-자녀간의 동거(이윤정·고선강, 2011), 성별(아들), 손자녀가 있는 경우

(김지경·송은경, 2004),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자가유무, 거주지, 총소득 등)(김순미·박미려, 2008)등이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 자녀들의 노부모 부양은 이타적 동기와 교환적 동기(고선강, 2012; 김지경·송은경, 2004)가 함께 공존한다.

다섯째, 노인들과 자녀들의 삶의 질에는 노인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도 매우 중요하다. 노부모의 특성 중 자녀에 대한 밀착과 의존성은 노인의 삶의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장수지, 2010), 노부모의 의존성과 비지지적 행동(박인아, 2012)은 자녀들의 노부모와의 관계에도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부모-성인자녀간의 지원유형은 비록 부모제공형이 가장 많지만 “높은 상호지원형”의 노인들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과 자녀없이 다른 사람과 사는 노인이 부부만 사는 노인이나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에게 비해 삶의 질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노인들과 자녀들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통한 공존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우리나라의 부모자녀간 경제적 자원의 이전은 생애과정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표 4>와 같이 2006년 이후 그 비율이 감소하기는 했으나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약 50%는 대학졸업까지, 20.4%는 혼인 때까지를 부모의 책임한계로 인식하여, 다른 나라 부모들과는 달리 매우 긴기간 동안 경제적 정서적 양육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같은 조사에서 출생에서 대학 졸업까지 재수, 휴학, 어학연수 등을 제외하고도 자녀 1인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천원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김승권 외 2013)에 의하면 20-44세 미혼자녀의 경우 남성은 48.9% 여성은 51.1%가 부모와 동거하며, 비취업인 경우는 비율이 더욱 높아 남녀 각각 72.4%, 74.1%의 높은 동거율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취업한 경우의 동거율은 62.6%에 달한다.

<표 4> 기혼부부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에 대한 견해

구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취업할 때까지	혼인할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기타	생각해보지 않음/모르겠음
2006	8.6	46.3	11.9	27.0	5.5	0.1	0.5
2009	9.6	49.6	12.2	23.1	5.0	0.1	0.4
2012	8.9	49.6	15.7	20.4	4.6	0.0	0.8

*출처: 보건복지부(2013). 2012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분석결과 통합 발표, 보도자료(p. 7)

또한 김지경과 송현주(2008)에 의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이전하는 소득금액이 자녀가 부모에게 이전하는 금액보다 2.8배 많으며,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는 소득이전에 있어 자녀가 부모보다 더 큰 수혜액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과 2011년간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현황<표 5>를 보면 2011년의 경우 1인당 상속재산가액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 2007- 2011 국세청 상속세 신고 현황 기준

납세지별(1)	상속세종류별	2007	2008	2009	2010	2011
소계	피상속인수 (명)	3,151	3,703	3,771	4,083	4,316
	상속재산가액 (백만원)	7,203,296	8,323,513	8,254,263	8,709,688	9,244,612

*출처: kosis.kr/gen_etl/start.jsp?orgId=133&tblId=DT_133N_611&conn_path=13&path=재정?금융?보험>
 재정 >국세통계>국세통계(~최근>상속?증여세>상속세 신고 현황6.1.1 상속세 신고

이러한 사적 증여는 결혼과정에서 더 많은 부분 이루어진다. 최성애(1993)는 “혼수전쟁”이라는 책에서 우리나라의 결혼풍습에는 가부장문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물신숭배가 깔려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녀들의 은근하고 의도적인 재산분배의 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인터뷰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 경북도 소비자보호센터가 조사한 통계(영남일보 2013. 2. 14)에 의하면, 결혼에 드는 비용의 부담은 ‘부모가 모두 부담했다’가 43.2%를 차지해 결혼에서의 부모의 기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2) 사랑,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제한된 자원을 공유한 가족에서 세대간 소통은 합의와 양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자질은 부부관계를 통해 학습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결혼의 상호보호와 만족이 강조되고 평등한 배려와 존중이 결혼의 기반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할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함께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기 때문이다(정현숙, 2007). 우리나라의 가족형태가 앞의 <표 2>에서와 같이 급격하게 핵가족화 되고 부부중심으로 변하고 있지만 많은 연구들(이기영 외 1995; 정현숙·유계숙, 2001)은 부부가족에서 사회적 관계망에서의 지원보다는 부부역할이 결혼의 성공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결혼만족도 연구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부부 개인의 특징이나 사회적 지원의 정도보다는 부부간 관계적 특징, 예를 들면, 성, 여가생활, 부부간의 헌신, 부부간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정현숙, 2007). 이와 같이 결혼생활에서 부부의 관계적 기술이 결혼생활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부부들이 이러한 기술을 습득할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부부들의 이혼율과 가족폭력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부관계에 대한 교육효과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은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전인 미혼시기의 교육이 매우 효과적이며, 교육효과도 지속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Gallagher(2002. 4. 23.)는 결혼전 교육을 받은 예비부부들이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부정적인 감정교환과 폭력을 및 이혼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박말순(1998)도 결혼전 부부교육이 결혼후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정현숙, 2007에서 재인용).

의사소통의 핵심은 개방적인 메시지 교환, 감정이입과 지지적 발언 및 효과적인 문제해결기

술을 지닌 의사소통 등이다. 역할 태도(박은아·이정우, 2005; 정은, 2004), 결혼생활 목표(애정유지, 경제적 안정, 자녀성공, 사회적 인정 등; 정은, 2004; 정은·이수한, 2007), 자아존중감(김태현·박선민, 2004; 송시내, 1999), 가족규칙(김태현·박선민, 2004; 박은아·이정우, 2005), 친밀감(박은아·이정우, 2005) 등은 부부의 의사소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부모자녀의 의사소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아존중감(김태현·박선민, 2004), 가족규칙(김태현·박선민, 2004), 학습능력(김인희, 1993), 가정분위기(김순옥, 1990; 안현정, 2004; 이영숙, 2001; 이정우·김규원, 1989; 최남선, 1999), 적응성(안현정, 2004), 응집성(안현정, 2004), 대화욕구(이영숙, 2001), 부모와의 대화시간(안현정, 2004; 이영숙, 2001; 최인경, 2001) 등이 지적된다. 또한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양육태도와 자의식(김소영, 2005)이 중요하다.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들에 의하면 유아와 아동의 이타심과 배려심의 발달에는 공감능력(조효진·손난희, 2006; 김양자, 2011), 부모양육태도(전병성, 2003) 등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소통과 공존을 위한 많은 능력들이 가족에서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 발달하며, 이러한 능력은 이혼과 폭력과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이면서, 또한 사회에서 세대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한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세대갈등의 불편한 현실들

부모와 자녀간 소통에서 외현적 갈등의 대표적인 예는 노인학대 문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2002)의 노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면 전체노인의 37.8%가 학대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 수치는 1999년의 8.2%에 비해 4배가량 증가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학대 가해자가 주로 부양을 맡고 있는 장남(42.9%)이나 며느리(39.9%), 딸 등 가족 내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가족들과 함께 살 경우는 신체적 학대가 49.1%, 함께 살지 않을 경우는 경제적 학대와 방임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가 일부 가정이나 시설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며, 가해자가 가족원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학자들(나용선, 2005)은 진단한다. 또한, 노인자살 이유 중 1위가 빈곤으로 인한 생활고이며, 노인의 34.7%만이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부담하고(정경희 외, 2012) 있는 현실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의 불편한 진실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이 가족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사회적 지원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으나 노인요양원의 실태에 대한 보도들(한겨레신문, 2013. 4. 22(체념한 할머니의 푸념 “자식 일곱 있어도 오는데), 2013. 4. 25(노인들한테 진 빚 많은 국가는 뭘 했나), 2013. 4. 25(요양업 사정도 이해해야...개선점 찾겠다), 2013. 4. 25(요양시설 인권침해 막을 ‘정부 감독기구’ 만들어야, 값싼 노동, 싸구려 복지)을 살펴보면 가족과 사회에서의 노인부양에 대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노인 학대뿐만 아니라 가족내의 폭력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여성가족부(2011)의 “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2010년 부부폭력률은 53.8%로 2004년 44.6%보다 증가하였으며, 자녀들에 대한 학대 중 신체적 폭력 발생율은 경한폭력이 39.4%, 주먹으로 차거나, 목을 조르거나, 칼 가위 등으로 위협하는 등의 중한 신체적 폭력발생율도 11.1%에 이른다.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정서적 폭력비율도 48.7%이며, 욕설을 퍼붓거나 악담을 하는 경우도 24.2%나 된다. 이러한

폭력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들이 있으나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볼 수 있다

4.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학자들은 세대간의 갈등의 원인을 사회구조적인 측면과 가족구조적인 변화에 놓고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대간의 정서적 유대를 통한 대화와 상호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가족들의 노력만 큼 가족이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은 물론 사회와 국가도 새로운 가족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의 가족의 혁명적인 변화와 고령화, 세계화 등의 현상은 우리 앞에 닥친 하나의 현실이며 절대적 상수(constant)는 아니지만, 변경할 수 어려운 상수이거나 우리의 재량권이 한정된 독립변수에 가깝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세대간 가치관과 인식의 차이는 더욱 간극이 넓어질 것이다. 이러한 차이를 갈등으로 인식하는 한 문제의 해결은 어렵다. 이제는 피할수 없는 당연한 차이를 차별이나 갈등으로 인식하는 틀에서 벗어나 소통과 협력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출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대관계의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역할과 가치의 재발견

한국가족의 현주소에서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 가족은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이타심과 배려심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장소이며, 건강한 가족에서는 자아존중감, 친밀감 등의 다양한 특성들을 통해 건강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며,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와의 대화시간, 가정분위기, 응집성 등을 통해 친밀한 부모자녀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서구의 가족이 개인주의적 가치에 의해 성년전의 과정으로 법적, 사회통념적, 관습적으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가족은 가족간의 관계가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이며, 연속적이다. 또한 상속보다는 자녀들의 교육과 결혼 등의 생애과정을 통해 사적증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다. 현재 서구의 많은 사회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극에 달하면서 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구의 가치에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 혹은 아시아의 가족의 가치이다. 정현숙(2004)은 공동체 형성의 기초로서의 가족의 중요성과 왜 가족이 공동체의 원형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유교의 핵심가치인 인(仁)도 자식, 가까운 사람부터 챙기는 관계 정립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족 가치가 점차 입시 등의 중요성으로 인해 희석되고 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간에 이루어지는 교육지원이나 결혼비용 지원 등의 사적지원을 당연히 여기며, 그 결과 지금의 중년세대는 가족에서 위와 아래 세대에게 모두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본인들의 노후를 걱정해야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자녀들의 자발성과 창의성 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더욱 부모에 의존하는 나약한 자

녀들을 양산하게 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 중간세대는 이제 사회적으로도 자식들과 연금과 고용문제에 대해서도 경쟁해야하는 상황에도 놓이게 되었다. 부모자녀관계가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제 부모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부모들의 권리강화를 위한 문화를 형성하고 이를 자녀들에게도 교육하여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상생의 문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단체나 언론 등에서 홍보하는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시간 보내기를 통해 가족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왜냐하면 가족은 식구이기 때문이다.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은 바쁜 아버지와 아들이 1박2일의 여행을 통해 밥을 함께 먹고,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관계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아이들의 순수한 시각으로 보여줌으로서 시청자들의 공감을 사고 있다. 실제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자녀들의 성장에 그리고 부모의 관점에서 자녀와의 애착을 형성하여 부모역할을 인식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며, Olson과 Dfrain(2003)이 주장하는 건강한 가족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나라 가족정책과 언론의 실태는 이러한 방향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인상이자이다. 예를 들어, 시장중심적인 보육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2013년 3월부터 시행된 만0세-5세보육 대상의 소득에 상관없는 무상보육을 실시한 이후 어린이집 이용률은 46.1%(만0-2세 47.9%, 만3-5세 28.2%)로 13년 1월(44.4%)대비 1.7%p 증가했다(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 3.22). 2012년 보육실태(보건복지부, 2013)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만 0~2세의 영아의 47.9%가 어린이집에 다니며, 10.5%는 영어유치원·반일제학원·문화센터 등 사설기관(학원)에 다니고 있다. 이 중 영·유아의 66.5%가 특별활동 수업을 받고 있으며 75%가 영어수업을 받고 있다. 만 3~5세의 유아는 어린이집(42.3%)이나 유치원(48.2%)에 가는 경우가 90%를 넘는다.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맞벌이 부부 자녀의 영아는 8시간 8분, 유아는 8시간33분이며 외벌이 부부의 영아는 5시간53분, 유아는 7시간15분으로 우리나라 영우아의 어린이집 등 가정외의 돌봄의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부터 정부가 무상보육을 시행한 이후 정책의 수혜 대상자인 서울 시내 만 2세 이하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20%나 늘어난 것(연합뉴스, 2013. 4. 4)은 부모와 아동 모두에게 매우 불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유아의 양육자에 대한 애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부부들이 부모로서의 정체감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의 출생으로 새롭게 획득하게 된 부모의 지위(status)에 대한 역할(role)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부들도 부모라는 정체감을 형성하여야 한다. 애착은 저절로 얻어지는 특질이 아니라 부모가 새로 태어난 유아와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고 그 결과 부모로서의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아동학대와 유기, 방임 등 부모역할의 미숙으로 인한 아동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여성들이 취업을 하지 말고 집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라는 의미가 아니며, 가족의 돌봄노동의 문제를 가족에게 다시 돌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의 형성을 위해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가족의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부모의 부모정체성 형성을 위해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세대간 소통을 통한 상호양보의 필요성

자녀들이 모계와 더 친밀감을 느끼고, 손자녀의 노부모의 대한 태도가 부모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정서적 요소가 세대간 사적 공적 증여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 결과들은 세대간 소통에 중간 세대의 중요성과 세대간의 접촉 기회, 심리적 친밀성 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박영균(2009)은 청소년과 부모의 문화갈등의 요소로 정보격차(디지털 분리현상)를 지적한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격차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 광고에서는 말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문자로 “안녕, 아들”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아들이 어머니의 능력에 새삼 놀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나 부모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정보화기술 수준을 자녀의 수준만큼 따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정보화 격차가 세대차이의 원인이지만, 이러한 격차를 이해하는 세대 간의 배려와 양보가 중요하다. 즉, 부모들의 자녀세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 자녀세대도 부모세대에 대한 이해와 양보 및 배려가 필요하다. 실제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세대차이가 어떻게 수렴 혹은 통합하는가를 질적으로 분석한 조성남과 최유정(2003)은 가족내에서 세대갈등이 애정에 기반한 부모의 양보와 합의에 의해 그리고 자녀세대의 부모세대 이해로 해결되는 메커니즘을 발견하였다. 즉, 부모세대만의 희생과 양보가 아니라 자녀세대에서의 희생도 중요하다.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노부모의 의존은 노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중간세대인 중년세대의 무조적적인 자녀의 전생애에 걸친 사적이전을 자녀들은 너무나 당연히 여기게 되었다. 아래의 신문기사의 예처럼, 60세 이상의 고령 직원의 채용과 이들을 배려한 업무 배치와 임금 조정, 작업환경 조성, 노무 관리 등의 상황에서도, 업무지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인 나이 어린 공장장의 어려움은 세대간의 소통과 함께 상호 양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참고자료> 60세 정년 시대의 해법 ... 고려제강 연양공장서 배운다(중앙일보, 2013. 5. 2.)

1948년생,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66세인 김병섭씨는 매일 오전 7시면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아파트를 나와 통근버스에 오른다. 김씨의 목적지는 집에서 30분쯤 걸리는 고려제강 연양공장.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에 있는 특수선재 공장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이곳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해 6년째 근무하고 있다. “지각도, 결근도 함도(한 번도) 안 했지예. 월급예? 190만원 쯤 너머예. 돈이 문제가 아이고, 올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다능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예.”

고려제강 연양공장은 조금 ‘특별한 일터’다. 이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 근로자 34명의 평균 연령은 만 63세다. 고려제강과 고려강선·홍덕산업 등 20여 개 계열사에서 만 55세로 정년퇴직하고, 이후 3년간 촉탁직 근무를 마친 다음 58세에 입사할 수 있다. 정년퇴직자도 신체검사에 합격하면 모두 정규직으로 재고용된다. 최고령인 김영일씨는 만 70세, 강길부 공장장이 만 58세로 ‘최연소’다. 강 공장장은 “중국으로 기존 설비를 이전하면서 1년 넘게 비어 있던 연양공장을 2008년 9월 ‘퇴직자 전용공장’으로 재정비했다”며 “이후 정년퇴직한 입사 희망자를 전원 고

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략)

퇴직자 전용공장은 홍영철(65) 회장이 제안해 이뤄졌다. 노동조합이 1993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면서 노사 화합의 토대를 닦자 홍 회장이 ‘재고용 카드’를 내놓은 것. 홍 회장은 “납기와 품질, 생산성 등에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연양공장이 가동된 지 5년, 고민은 없을까. 강 공장장은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는 고령 직원만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업무 배치와 임금 조정, 작업환경 조성, 노무 관리 등은 다른 회사 사례 참고가 불가능해 숙제가 태산 같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구상만 1년 이상, 준비기간 3개월, 투자비용은 수억원이 들었다.

또 한 가지는 국내 직장에 유교적 문화가 여전해 한층 신경 써야 할 ‘아우 리더십’이다. 강 공장장은 “이들은 25~40년간 근무하면서 반장·직장까지 지낸 자존심이 강한 분”이라며 “이들을 ‘관리’하기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웃어른에게 업무 지시를 하기도, 잘못된 일이 있을 때 경위서를 요구하기도 난감하다. 공장장이 직위상 가장 윗자리지만 여기선 가장 속 타는 자리”라고 털어놓았다.

정년 60세 법안이 통과되면 이 공장은 ‘60세 입사’로 전환될 전망이다. 회사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연양공장의 정년은 “건강이 허락하는 데까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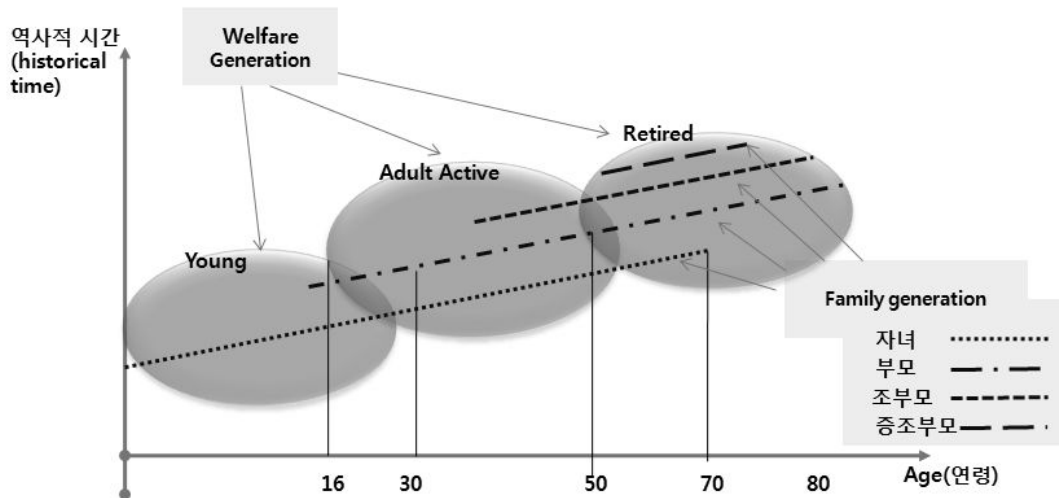
이와 같이 세대간의 소통은 갈등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과정이며, 소통을 위해서는 이타심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덕목이다. 이명진(2013)도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요소로 기회, 소통, 신뢰, 협력을 강조하면서, 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세대간극을 줄이고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멘토링시스템, 공동학습공간 등 여러 세대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제안은 가족현장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다. 즉 세대관계에서의 핵심은 세대간 소통, 만남, 대화라는 것이다.

최근 기독교(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ayjesus&logNo=80188249581; 김세광, 2008)에서 이루어지는 가족 예배 등 세대통합을 위한 노력은 가족문제 해결에 많은 시사점이 있다. 김세광(2008)은 분화되어가는 세대별 예배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 대안으로 세대통합예배, 즉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공동체 예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종교적 가치는 건강가족적 관점에서도 핵심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의식 참여 방법은 세대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분절적이다. 다양한 세대의 가족구성원들이 함께시간 보내기가 사회통합을 위한 기초라는 것을 사회가 함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가지 사례는 조용필의 “Hello”의 음반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신문기사들에서 “정치권도 하지 못한 세대통합을 조용필이 음악으로”, “젊은세대 감성 이해하는 어른에 대한 갈망 반영(연합뉴스, 2013. 4. 28), ”세대통합 평가, 대학축제 초대 급증“ 등의 기사들은 이 음반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 음반의 Hello라는 곡은 젊은 음악가 버벌진트가 featuring 한곡으로 젊은 세대와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3) 세대관점을 적용한 가족관계 연구의 필요성

이번 발표를 위해 문헌고찰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세대관점을 반영한 가족관계 연구가 부족하여 인용할 자료가 제한된 점이였다. Attias-Donfut와 Arber(2000)는 다른 연령집단 간의 공적자원 공유와 복지와 혜택의 분배에서 기인하는 세대간 갈등에서 세대간의 공적 기여는 관심의 초점이 된 반면, 가족내의 세대간의 경제적, 사회적 교환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그림 2>와 같은 가족과 복지세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출처: Attias-Donfut & Arber(2000), p. 5

<그림 3> 가족과 복지세대(family & welfare generation)

복지세대와 가족세대에 대한 이 이론적 틀에서, 복지세대는 일자리참여와 연령간 상호작용으로 현재 일하는 집단, 취업준비집단, 조기퇴직이나 은퇴한 집단(복지세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족세대는 이와 같은 선제적 조건은 없으나 족보에 따라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가 결정되며, 성인자녀와 부모가 <그림 3>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그룹에 함께 속할 수가 있으며, 또한 가족세대와 복지세대 내에서의 사람들의 지위가 많은 부분 겹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문분야에서는 세대의 한 측면만을 수용하는 우를 범한다고 Attias-Donfut 와 Arber (2000)는 분석하였다. 즉, 취업한 젊은 세대가 자녀일 수 있으며, 부모의 역할을 하는 두 번째 집단인 “adult active” 가 될 수도 있다. 이 두 번째 집단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의 중년세대로 자녀들에게 사적증여를 통해 빈털터리가 된 집단이면서, 자신들은 노후가 불안하고, 일자리를 놓고 자녀와 경쟁하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가족에서의 지위와 복지세대적 관점을 함께 적용하여 이들의 관계에 대한 체계적연구와 이를 통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소통이 필요하다.

세대연구에서 코호트효과와 세대효과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방법론적인 문제들이 있으나(함인희, 2013), 학자들은 세대의 유형과 그 유형별 특성을 <표 6>과 같이 제시한다. 최원기(2006)는 신세대와 기성세대를 구분하면서, 신세대를 X(1965-1978년, 베이비 붐 세대 이후; 개성, 목표의식, 풍요, 저항 등), Y(1979-1994년: 낙천성, 관대함, 지적 호기심), N세대(1977년 이후, 연령,

문화적, 감성적 차이와 다르게 컴퓨터를 매개로 분류: 개방성, 사이버 공동체 의식, 여가 중요)로 구분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신세대의 특징으로 1) 다양성의 강조, 2) 물질적 가치 강조, 3)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혼재, 4) 사이버문화와 문화변동의 주류세대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함인희(2013)는 인구학적 패러다임과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우리나라의 해방후 농축된 변화를 볼 때 세대간 경험의 단절과 세대갈등이 일상화되었음을 강조한다. 비록 학자들간의 합의는 없으나 역사적 경험과 정치적 사건을 고려하여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한 시대, 정치적 독재와 민주화 운동에 선봉을 선 4.19세대, 근대화의 주역인 5.16세대, 자존권과 자주권을 주장한 6.3세대, 정치적 민주화의 희생을 경험한 유신세대, 민중항쟁을 거쳐 민주화를 이끈 6.29세대, 월드컵, 촛불시위를 주도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선도한 2002세대 등으로 구분 한다. 이들을 크게 세분할 때는 산업화세대(5060), 민주화 세대, 정보화세대(디지털 세대, N세대, 2030세대)로 나누기도 한다.

가족이 세대관계의 원형이지만, 가족학 분야에서 세대프로그램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세대구분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가족학적 관점에서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의 지위에 따른 역할에는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들의 세대적인 특성은 간과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또한 앞서서도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교육, 자녀의 부모와의 동거 등을 통한 비공식적인 사적증여가 많은 부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자발적이고(경우에 따라서는 비자발적이기도 함) 비공식적인 사적증여와 공적 증여를 함께 고려한 연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과 가족세대내에서의 집단간 변이를 고려한 연구설계를 통해 소통의 단초들을 찾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4) 세대관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의 필요성

Newman(1989)은 세대프로그램(Intergenerational program)을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 상호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긍정적인 장기적 관계를 촉진하는 경험과 지식과 기술을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social service program)으로 정의한다. 미국노년학회(National Council on the Aging)에서는 “두 세대 사이에서 협동, 상호작용 혹은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기술,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것”(PENNSYLVANIA website)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여기서 세대개념은 노인세대와 아동과 청소년 등 동일한 생애주기단계를 의미한다(Newman, 2003). 미국 사회에서도 1970년 이후 가족 내에서의 세대관계와 가족과 지역사회의 세대간 관계에 대한 활동뿐만 아니라 세대간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기 시작하였다(Newman, 2003). 그러나 1960년 이후 세대관계에 대한 연구는 많은 부분 아동과 노인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초점이 맞추어졌으며, 세대간 프로그램은 학교, 아동 및 노인탁아소, 지역사회센터 및 시민조직과 청소년집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세대프로그램은 다른 세대들이 의도적으로 함께 해서 상호적으로 이익을 얻고 계획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며, 이러한 활동의 목적은 지식, 기술, 경험의 공유를 통해 세대 간 협동,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진하는 것이다(Ayala et al., 2007). 그 결과 세대프로그램은 개인과 지역사회에 모두 도움이 되고 있다(Greengross, 2003; Vernon, 1999). 이러한 세대

<표 6> 역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건을 고려한 세대구분과 특징

세대구분	역사적, 사회적 특징 [^] (김문조, 2003; 함인희, 2013 등, 박길성 등, 2005)	결혼, 가족관계적 특징*
산업화 세대 근대화 세대 5060세대 베이비붐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 25, 4.19, 5.16을 경험 · 베이비붐 세대(1954년부터 61년까지 출생한 집단): 절대적 빈곤의 유년기, 중고등학교시절 반공교육, 새마을 운동, 근대화 경험. 사회적 정체감이나 세대적 동질감 부족 · 성장주의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고민해옴 · 가족과 국가에 헌신 · 기성세대로서의 권위 상실 · ‘97외환위기 이후 상시적 은퇴압력에 직면함 · 열심히 일하고도 고령화패비에 취약함 · 정보화와 세계화에 대한 적응력이 미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도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결합이 강조되는 제도적 결혼 (institutional marriage)# · 가족이데올로기
민주화 세대 386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 광주항쟁에서 ‘87년 6월 항쟁에 이르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거나 동조해옴 · 386세대: 위의 시기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민주화운동을 공유한 집단 · 뉴미디어를 활용해 사회활동을 경험함 · 한국적 특수성과 세계적 보편성 동시 추구 · 개인적 욕구와 공동체적 가치사이서 고뇌함 · 경제적 풍요와 외환 위기를 동시에 경험함 · 2002년 대선후 사회적 중심세력으로 부상 · 고용불안과 자녀교육에 시달림 · 마지막 유교적 전통주의 수용자, 높은 현실 적응력, 연고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인구학적 혁명(저출산, 고령화)과 2차 인구학적 혁명(인구감소현상과, 이혼, 동거, 혼외출산 및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을 동시에 경험 · 동료애, 우정, 낭만적 사랑이 강조되는 동반자적 결혼 (companionate marriage)#
정보화 세대 N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통신기기의 활용으로 정보환경에 친숙, 정보화 선두 ·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경험 · 정치경제적 이념보다 문화코드로 동질감을 느낌 · 한국적 규범, 가치보다 세계적 기준 중시 · 생존보다 삶의 질 추구 · 청년실업의 직접적 피해자 · 가상세계에서 공동체 구축 · 독립성, 자율성, 적극적 자기표현, 익명성, 자기중심적 행동유형과 사고방식 · 국민으로서의 자부심과 민족주의적 성향, 국가나 사회위해 개인희생은 감수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혁명의 세대(Goldschneider, 2000), 젊은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많은 자원을 보유한 역세대화의 주역(박길성 등, 2005) · 개별화된 결혼(individualized marriage)(부부관계에서 역할이 유연해지고, 두 사람 간 협상이 자유롭고, 자신의 자아감의 발달이 중요한 만족의 척도가 되는 결합)# · 부부관계에서 평등에 대한 강조(가사에 대한 공평한 분담, 공동의 의사결정, 비위계적인 의사소통, 평등적인 성관계와 상호존중과 호의 등(Harris, 2006)

*세대구분과 특징은 김문조(2003), 함인희(2013), 박길성 등(2005)등 자료로 재구성하였으며 가족관계적 특징은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을 정리하여 저자가 추가함.

Burgess와 Locke(1945)

프로그램은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노인과 젊은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가족세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다양한 세대 프로그램을 통한 소통과 세대간 접촉이 <표 7>과 같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모두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고 보고된다.

<표 7> 세대간 접촉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들

연구자	연구결과
Newman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간 프로그램 참여한 유아들은 과제에 머무는 능력이 증가하고 분노, 울음이 감소하고, 웃음과 행복감, 협동적 행동이 증가함. 또한 가족 내에서 어린 아이는 윗 형제들과 더 안전한 관계를 보이고, 새로운 사람과 환경에 덜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된다는 자신감을 더 가지기 때문임. · 세대간서비스활동참가(노인방문) 학생들은 사회활동이나 지역사회 프로젝트 참여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넓히는 경향이 있음. 또한 가족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개인·학업 문제를 가진 형제자매들을 지원하는 등 지도적 기술도 발달하고, 특히 사회에서의 차이와 불평등을 이해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 가족의 차이에 대한 수용이 증가함.
김윤옥·임재택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가정·학교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법안: 학교와 가정 잇기 프로그램’은 노인들을 교육시켜 자녀의 학교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을 대신하여 일주일에 4~8시간 정도 정기적으로 아동을 지도하는 자원봉사 활동을 함. · 직장에 다니는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들이 노인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연계를 맺는 이점이 있고, 노인들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활동함으로써 유익한 생활을 누리게 하는 효과가 있음.
박명숙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들과의 질 높은 애착형성은 아동들에게 또래나 낯선 어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감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 영향
원영희 등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활동성 및 지식 영역)에 긍정적 영향
이가옥 등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에게 휴대전화사용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며, 노인들의 장점을 발견하고 노인들의 어려움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됨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해 수준이 증가하였으며, 대학생들에게 삶의 다양한 차원에서 성찰적 기회를 제공하여 자기 발전의 계기가 됨
이신숙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모와 자주 접하는 손자녀일수록 조모를 통해 심리적 발달과 문화적 지식 및 가족역사를 전달받으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성장하게 되며, 가족역시 친밀한 조모-손자녀 관계를 통하여 가족의 결속력이 높아지고 가정의 역사성을 갖게 됨.
이영숙·박경란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년학 교육 이후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 변화를 보임
임재택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교육기관의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후 유아나 아동들은 할머니나 할아버지와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고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하루종일 노인과 같이 활동하기를 희망하고, 지속적인 노인의 기관 참여를 희망함
전혜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폭력적인 비행행동의 빈도가 줄고, 부모와 조부모와 기꺼이 대화에 참여하는 경향이 증가하며, 노인세대 어려움을 이해하고 인정함
정은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부모 자신과 손자녀에 대한 이해(발달적 특성)와 기술발달(손자녀와의 적절한 의사소통방법, 갈등해결 방법 등)
한정란 (19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및 여대생을 대상으로 세대 프로그램을 실시한 이후 노인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었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한정란·최상민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공동체 봉사학습후 청소년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함.
홍달아기·하근영(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에서 조부모와 접촉적 유대와 애정적 유대가 좋을수록 노인부양 의식이 높음
홍숙자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모는 손자녀를 통하여 생의 연속감을 느끼고 손자녀에게 인생을 통한 경험과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생산감을 가진 노년기 통합을 이루게 됨

*노인학, 가족학, 아동학,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개발된 세대프로그램의 현황은 정현숙 등(2011)을 참조할 것

그렇다면 이러한 세대프로그램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일차적으로는 세대간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시작이다. 이러한 시작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고 이를 통한 세대통합을 이루기 위한 한 방안으로 다중문화능력(multi-cultural competence)(Lustig & Koester, 2003; Neuliep, 2000)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전세계적인 정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 뿐만 아니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세대 집단간의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표 8>과 같은 다중문화능력은 세대간의 소통을 위한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8> Lustig와 Koester(2003)의 8가지 다중문화능력

영역	내용
상대방에 대한 존중 (Display of Respe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을 존중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 언어적 비언어적 상징을 이용함. 한문화에서 존중적 행동이 다른 문화에서도 항상 적용되지 않음
지식탐구 (Orientation to Knowled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세계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개념에 대해 정확히 사용하는 것. 능력있는 지식탐구자들은 타인에 의해 보편적으로 공유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개인적 해석과 경험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함. 자신의 문화적 관점을 갖는 것. 예: 경상도 사람들은 가부장적이야→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경상도 사람들은 가부장적인 사람들이 많았어.
감정이입 (Empat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가 세상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능력. 타인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에 대해 인식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상호작용기술 (Interaction Manag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화를 조절하는 기술. 시작, 끝내기, 토론유지, 순서지키기 등.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순서를 지키는지를 아는 기술.
과제지향적행동 (Task Role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지향적인 상황에서 집단의 문제해결활동에 기여하는 것으로, 문제해결활동과 관련하여 생각을 유도하는 행동, 더많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집단의 과제를 명확히 찾고,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등의 행동.
대인관계역할 (Relational Role Behavi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성원들과 개인적 관계를 만들거나 유지하는 능력. 집단성원간의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화롭게 만드는 것, 다른 사람의 참여를 격려하는 것, 흥미를 나타내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위치에서 화해와 양보하는 것 등
모호함에 대한 참을성 (Tolerance for Ambigu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롭고 모호한 상황에서도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 능력 새로운 상황을 도전으로 인식하며, 변화된 환경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적응함
상호작용자세 (Interaction Post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에 대해 묘사적, 비분석적, 무비판적인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

*정현숙(2010). 가족생활교육, p. 376

세대프로그램의 내용적인 면에서는 자기효능감도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박영신, 김의철과 박영균(2010)의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세대차에 대한 지각은 세대갈등에 영향을 미치고, 세대갈등은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세대차 지각이나 세

대갈등에 대해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에 3-9배의 강력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비록 세대차지 각과 이로 인한 세대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지만 높은 자기 효능감은 세대갈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매우 영향력 있는 변인이라는 것이다. 물론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부모 교육도 중요한데, 여기서는 부모의 권리를 강조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언론의 역할과 정치적 leadership

세대간의 소통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와 노년세대간의 합의와 양보가 필요하며, 가족-사회-국가간의 합의에 의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보장과 연금과 같은 문제들은 세대간 합의가 있어야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가족의 노력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정부가 정책의 틀을 제시하고, Forum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이슈화 하여 언론과 협력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르게 해야하는데 이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정치적 리더십이다.

리더십의 예는 EU 통합이후 많은 EU 공동체내의 많은 어려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서 찾을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독일 성장의 배경에는 15년 이상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한 임금억제, 고령자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들고 있다. 최흥기(2011)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우 2000년도에 들어와 실업률의 감소와 고용창출을 위하여 고령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핵심은 2007년 도입한 ‘이니셔티브 50 플러스(Initiative 50 plus)’로 불리는 고령자 고용정책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 고용기회 개선에 관한 법률(AltBeschVerG)이다. 이 법률은 임금보조금을 비롯한 채용보조금, 고령자의 기간제 근로계약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이 독일에서는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실업률의 감소도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 고선강(2011). 중노년기 가정의 세대 간 자원이전: 경제자원의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157-175.
- 고선강(2012).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자원이전의 호혜성.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2), 103-121.
- 민미정(2009). 조부모-부모-자녀의 관계와 청소년의 부모부양의식.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혜진(1992). 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문조(2003). 한국 세대담론의 심화를 위한 소고. 2003 한국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세광(2008). 한국교회 예배유형의 다변화에 따른 대안적 모색 - 중소형교회를 위한 세대 통

- 함애배의 필요성과 가능성. 신학과 실천, 15, 11-38.
- 김소영(2005). 중학생의 배려심: 요인구조 및 관련변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박미려(2008). 중·고령자가구의 경제적 자원 교류유형 및 교류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 26(5), 1-14.
- 김순옥(1990). 10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사소통 개방성과 그 요인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 외(2013). 2012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양자(2011). 부와 모의 격려가 이타행동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윤옥·임재택(1996). 보육시설에서의 노인·아동상호작용의 필요성 및 연구 동향. 영유아보육 연구, 1(1), 105-126.
- 김인희(1993). 어머니-자녀이 의사소통과 자녀의 성격특성상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한(2006). 정치적 세대갈등의 오해와 이해. 의정연구, 22, 135-156.
- 김지경·송은경(2004).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여부 및 교류액의 결정요인: 따로 사는 부모가구와 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75-89.
- 김태현·박선민(2004). 부부의 자아존중감과 가족규칙의 정도에 따른 가족의사소통 효율성. 아동가족치료연구, 3, 51-74.
- 김혜경(2006). 3세대가족과 핵가족의 세대 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부양관련 태도의 차이. 진리논단, 13, 55-77
- 남순현(2004). 가족 내 세대갈등과 통합.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2), 1-15.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광배·김미숙(1992). 한국청소년의 집단주의적 가치체계 - 가족관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6(2), 62-75.
- 박길성(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연금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12(1), 3-25.
- 박길성·조대엽·함인희(2005). 현대 한국인의 세대경험과 문화: 집문당.
- 박말순(1998). 결혼준비프로그램이 예비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명숙(2002). 민간보육시설에서의 노인자원봉사자 활용의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균(2009). 청소년과 부모세대 간 문화갈등에 관한 이론적 고찰. 청소년문화포럼, 21, 110-137.
- 박영신·김의철·박영균(2010). 세대 차이와 갈등은 삶의 질을 낮추는가? 자기효능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3), 533-559.
- 박은아·이정우(2005). 부부단독가구의 노인의 부부간 의사소통 및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23(2), 23-36.
- 박인아(2012). 기혼자녀의 노부모와의 관계 불만족이 노부모와의 관계 부적응 행동과 그 영향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지니는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6, 5-29.

- 박재홍(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 47-48.
- 보건복지부(2013). 2012 보육실태조사 결과 발표.
- 송시내(1999). 결혼생활 만족과 부부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 신수정(1994).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석사학위논문.
- 신수진 (1998). 한국의 가족주의 전통과 그 변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수진(2001). 가족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안현정(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관련변인에 관한 메타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제2차 가족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1). 2010년도 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경희(1997). 의사소통양식, 의사소통도 및 결혼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201-220.
- 원영희 · 김동배 · 이금룡 · 한정란(2002).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이 중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2(2), 131-146.
- 유진이(2002). 세대통합을 위한 효 교육.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세대통합을 위한 전망과 과제, 101-129.
- 이가옥 · 이지영 · 이미진 · 김연순(2008).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통한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와 자기성찰: 휴대전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9, 79-109.
- 이기영 · 김외숙 · 구혜령(1995). 부부의 공유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113-126.
- 이명진(2013). 새정부에 바란다: 세대갈등, 어떻게 풀 것인가?. 월간 경영계, 404, 28-29.
- 이순자(2011). 중소도시 중년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 이신숙(2007).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와의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479-490.
- 이영숙(2001).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2004). 청소년기 손자녀에 대한 조부모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673-681.
- 이위환 · 권용신(2005). 가족친밀감과 노인인식이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4(2), 165-178.
- 이정우 · 김규원(198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와의 커뮤니케이션 유형 및 만족도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7(3), 147-159.
- 이정우 · 이정숙(1992). 가족내 의사소통과 가정관리행동: 부산시 주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0(3), 241-256
- 이윤정 · 고선강(2011). 어머니와 성인자녀간 자원이전: 경제적 자원과 돌봄. 한국가정관리학회, 29(6), 137-151.

- 이정진(2007). 한국의 선거와 세대갈등: 제16대 대통령 선거과정 분석, 비교민주주의연구, 3(1), 51-92.
- 이창호(2002). 세대 간 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 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세대통합을 위한 전망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 임재택(2001). 유아교육기관의 노인·아동 상호작용 프로그램의 적용 효과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2(5), 67-101.
- 장호선(1987). 부모자녀간 개방적 의사소통에 관한 연구. 성심여대 석사학위논문.
- 전병성(2003). 공감과 이타행동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정(2007). 세대통합 프로그램. 세대통합. 한국인간발달학회·한국가족관계학회 공동세미나 자료집.
- 정동하(200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건강성, 부모-조부모 친밀감 및 노부모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4(3), 29-49.
- 정은(2004). 도시 기혼여성의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서울시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12(2), 173-199.
- 정은·이수한(2007). 농촌지역 여성노인의 부부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한국비영리연구, 6(1), 243-272.
- 장수지(2010).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사회과학연구, 26(1), 75-100.
- 정은미(2010). 청소년기 손자녀를 둔 저소득 조손가정을 위한 조부모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부모교육연구, 7(1), 5-21.
- 정현숙(2004). 공동체형성의 기초로서의 동북아 가족론 - 정서적 통합을 위한 과제. 한국동북아 지식인연대 편, 동북아공동체를 향하여(pp. 299-339). 동아일보사.
- 정현숙(2007). 가족생활교육. 신정.
- 정현숙(2011). 가족의 혁명적 변화와 대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1), 55-70.
- 정현숙·유계숙(2002). 가족관계. 신정출판사.
- 정현숙·최연실·이금룡·황혜신(2011). 세대프로그램. 신정.
- 조성남·박숙미(2002). 한국의 세대관련 연구에 나타난 세대개념의 구분과 세대갈등을 이해하는 방법에 관한 일 고찰. 사회과학연구논총, 9, 39-68.
- 조성남·최유정(2003). 질적 접근을 통해 본 가족 내 세대갈등 양상과 통합기제. 사회과학연구논총, 11, 71-114.
- 조은경·서병숙(1994). 부모-청소년자녀간의 대인거리·심리적거리 의사소통이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12(1), 104-116.
- 조효진·손난희(2006).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7(1), 1-9.
-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3. 1). 제 18대 대통령선거 투표율 분석. 보도자료(www.nec.go.kr).
- 전혜정(1998). 대안적 가족학 연구를 위한 인식론적 고찰,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2), 67-80.
- 최남선(1990). 청소년의 어머니와 의사소통유형과 갈등 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성애(1993). 혼수전쟁. 청산.

- 최슬기·최새은(2012). 세대간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부계와 모계의 비교연구. *조사연구*, 13(1), 89-112.
- 최원기(2006). 세대격차와 세대갈등에 대한 성찰적 논의. *한국인간관계학보*, 11(1), 85-103.
- 최인경(2001).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 따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흥기(2011). 고령사회에서의 고령자 고용정책- 최근 독일의 고령자 고용정책(Initiative 50 plus)을 중심으로. *노동연구*, 21, 151-188.
-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보도자료].
- 한완상(1991). 한국사회에서 세대갈등에 대한 한 연구. *사상*, 8, 248-309.
- 한정란(1994). 세대공동체를 통한 노인교육 교육과정의 예시적 실천연구. *한국노년학*, 14(1), 140-153.
- 한정란·최상민(2004). 세대공동체 봉사학습을 통한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변화. *Andragogy Toda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7(4), 75-100.
- 함인희(2013). 세대갈등의 현주소와 세대통합의 전망.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47-69.
- 홍달아기·하근영(2002). 조부모-손자녀 유대관계가 노인부양의식에 미치는 영향-전북지역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1(2), 107-121.
- Attias-Donfut, C., & Arber(2000). Equality and solidarity across the generations. In S. Arber & C. Attias-Donfut, C.(Eds.), *The myth of generational conflict: The family and state in ageing society*(pp. 1-21). New York, NY: Routledge.
- Ayala, J. S., Hewson, J. A., Bray, D., Jones, G., & Hartley, D.(2007). Intergenerational programs: Perspectives of service providers in one Canadian citi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5(2), 45-60.
- Bengtson, V. L.(1975). Generations and family effect in value socializ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0(3), 358-371.
- Beutler, W., Burr, W., Bahr, K., & Herren, D.(1989). The family realm: Theoretical contribution for understanding its uniquen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805-830.
- Bianchi, S., Hotz, V. J., McGarry, K. M., & Seltzer, J.(2006). *Intergenerational Ties: Alternative Theories, Empirical Findings and Trends, and Remaining Challenges*. On-Line Working Paper Series, California Center for Population Research, UC LA.
- Burgess, E., W., & Locke, H.(1945). *The family: From institution to companionship*. NY: American Book Co.
- Burr, W., Day, R., & Bahr, K.(1993). *Family science*.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Davey, A., Savla, J., & Belliston, L. M.(2003).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In J. J. Ponzetti, Jr.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hips* (2nd ed.) (pp. 918-922). New York: Macmillan.
- Goldschneider, F.(2000). Men, children, and the future of the family in the third millenium. *Futures*, 32, 525-538.]

- Greengross, S.(2003). Intergenerational programmes as a global approach to social issu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1(1), 11-13.
- Hanks, R. S., & Ponzetti, J. J.(2004). Family studies and intergenerational studies: Intersection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2(3/4), 5-22.
- Harris, J. R.(1998). *The nature assumption: Why children turn out the way they do*. NY. Free Press.
- Hsu, F. L. K.(1985), "The Self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Culture and Self; Asian and Western Perspectives, Tavistock Publication; New York and London.
- Hsu, F.K.(1975), 『Iemoto : The Heart of Japan』, 김주희 역(1985), 이에모또- 일본사회에 대한 심리인류학적 접근. 서울: 현상과 인식.
- Kertzner, D. I.(1983). Generation as a sociological problem. *Annual Review of Sociology*, 9, 125-149.
- Klein, D. M., & White, J. M.(1996). *Family theories: An introduction*. Thousands Oaks: Sage.
- Lowenstein, A., & Bengtson, V. (2003). Challenges of global aging to famili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 V. Bengtson & A. Lowenstein (Eds.), *Global aging and challenges to families* (pp. 371-379).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Luescher, K., & Pillemer, K. A. (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413-425.
- Lusting, M. W., & Koester, J.(2003). *Intercultural competence*. Boston: Allyn & Bacon.
- Martin-Matthews, A., & Kobayashi, K. M.(2009).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The Marriage and Family Encyclopedia*. Retrieved May, 201
- Neuliep, J.(200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Co.
- Newman, S.(2006). Research and intergenerational studies: A glob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4(2), 111-114.
- Olson, D., & DeFrain, J.(2003). *Marriage and families: Diversity & strengths*. London Toronto: Mayfield Pub. Co.
- Roodin, P.(2004). Global intergenerational research, program and policy: What soes the future hold? In Larkin, E., Friedlander, D., Newman, S., Goff R.(Eds.),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Conversation on practice and research across cultures*(pp. 215-220). NY: The Haworth Press, Inc.
- Todd, E. (1983). *La troisième planète: structures familiales et systèmes idéologiques*. Paris: Editions du Seuil.
- Todd, E. (1990). *L'invention de l'Europe*. Paris: Editions du Seuil.
- Vernon, A. E. (1999). Designing for chang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intergenerational programming. *Child and Youth Services*, 20(1/2), 161-173.